



■ 부산대 朴在潤 총장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최선”

■ E-mail 인터뷰 : 李光榮(전북대 초빙교수/본지 편집위원)

부산대학교 박재운(朴在潤)총장은 본지와 E-mail 인터뷰를 통해 부산대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국제화와 정보화가 가장 앞서가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기계공학, 정보컴퓨터공학,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등을 대학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시켜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수준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적어도 수개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선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기간 동안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7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도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추진정책에서부터 오늘의 정보산업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국가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연구·개발하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운영방침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진리, 자유, 봉사의 정신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큰 이념으로 1946년 5월 15일 개교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국립대학교로 1946년에 개교한 부산대학교는 지난 55년간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 지역 핵심 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평양권 핵심 역량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화가 가장 앞서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수립, 시행 중입니다.

■ 부산대학교의 21세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이 있

다면.

부산대학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국제화와 정보화가 가장 앞서는 대학으로 발전해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기계공학, 정보컴퓨터공학, 나노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등을 대학의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시킨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8월 말에는 미국 6개 대학의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와 연계한 국내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의 메카인 '한국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를 본교에 유치하였고, 올해 중으로 아시아센터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 환태평양권 선진대학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가져 부산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총장께서는 부산대학교의 제2건학과 제2캠퍼스 조성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산신도시 제2캠퍼스 조성 착수

부산대학교는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 오던 제2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해 지난 2002년 1월 10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학내 구성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 대망의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제2캠퍼스 조성은 우리 부산대학교의 25년 숙원사업이었고 제2캠퍼스 조성사업의 착수는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소하고 과밀한 교육·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부산대학교는 머지 않은 장래에 '환태평양권의 핵심 역량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고한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의 교육·연구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제2캠퍼스의 조성은 가히 제2의 건학에 비견될 수 있는 대역사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양산 신도시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설계 등 세부 실행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곳에는 첨단미래형 제2캠퍼스가 들어서며,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2004년 말에 의·치과대학 건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

미동의 현 의·치과대학 공간을 활용하여 대학병원을 최첨단 의료시설로 탈바꿈시킵니다. 나아가 제2캠퍼스 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장전동 캠퍼스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면 자연 조건이 매우 뛰어난 장전동 캠퍼스를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해서 순수학문 분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학부제의 도입 취지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으로 인해 학생들이 너무 좁은 공부를 하는 문제, 종합적 판단력 및 기초지식이 부족한 고교시절에 대학에서 전공할 분야를 비합리적으로 선택한 데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대학 행정의 단계를 줄여 대학 본부와 학부를 긴밀히 연결시킨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상당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제간 담을 허무는 추세를 감안하면 학부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형식논리에 치우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그 적정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부로 통합되어 있는 일부 전공을 특성에 따라 분리하고, 반대로 일부 학과는 학부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세분된 학과를 학부 단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현재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약학대학, 일반학부 등 15개의 학부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는 종전의 학과 단위로 분리하고 다른 일부 학과를 묶는 방안을 놓고 합리적 개선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학의 과학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대학의 기초 과학발전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날 여러 부문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요즘은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 기피현상은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는 저의 평소 소신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과학의 육성 없이 미래 기술산업을 주도할 정보기술분야(IT), 생명기술분

야(BT), 나노기술분야(NT) 등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대학교육이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보다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열심히 연구하는 등 교수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 **최근 들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높은 담을 헐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인문과학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학과 인문사회의 높은담 헐어야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찍이 C.P. 스노우가 지적했듯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으로 대별되는 두 문화간의 간격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소설책도 읽고 철학책을 읽을 때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국가발전과 인류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반대중들도 과학기술에 대해 어렵다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과학기술에 대해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과학기술의 고마움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문화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와 인문사회학자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일반 대중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언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과의 사이에는 담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총장께서는 경제학자로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통상산업부장관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력**

이 대학 총장을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요.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 20여년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이후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서 다시 교수로 있다가 부산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양성되는 대학에서 나오며, 그들의 능력과 가치관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고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힘도 대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부 개척시대부터 그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유럽을 이기는 방법은 대학에 투자해 보다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 때부터 재력가가 대학에 투자하는 일이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업, 정부, 사회가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총장이란 그런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대학 경영이 다른 생산업체와는 다르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 일하며 국가 경영에 참여해본 경험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사회나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과학기술자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 인간복제 문제 등은 모두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되 이러한 과학기술의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며 자신의 연구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먼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국가 이익과 개인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7